靑泉의 文學觀과 詩論

金 榮 淑

<目 次>

1. 緖 言
2. 文 學 觀
3. 詩의 樣相
4. 詩 論
5. 文學史的 考察
6. 結 語

1. 緖 言

어떤 作家의 文學觀이나 詩論에 대한 硏究는 作品論을 통한 作家論의 한 측면을 살피는 것이라 하겠다. 文學觀이 包括的이고 一般的인 것이라 한다면 詩論은 그 文學觀의 一部로 具體的인 詩에 대한 見解로서, 이들은 全體와 部分의 關係를 이룬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文學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보는 것보다는 詩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詩論이란 말을 個別的인 詩作品에 대한 評論으로 보기도 하고 詩 자체에 대한 本質이나 形式 등을 따지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筆者는 後者의 立場에서 靑泉 申維翰[1]의 文學觀과 詩論을 考察코자 한다.

靑泉은 文과 詩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뚜렷이 밝힌 글을 많이 남겼고[2],

---

1) 申維翰(1681~1752) ; 字는 周伯, 號는 靑泉 또는 伽倻樵叟, 本貫은 寧海, 泰始의 아들, 生父는 泰來. 增廣甲科에 壯元한 후 製述官으로 日本을 다녀왔고, 이어서 奉常寺判官, 茂長縣監, 平海郡守 등을 역임했다. 本稿 敍述의 편의상 '靑泉'이란 號만을 쓴다. 또 文集引用에서도 靑泉集은 《原集》으로, 靑泉先生續集은 《續集》으로 略記한다.

2) 靑泉이 자신의 文學觀에 대해 밝힌 글에는 〈上李學士廷濟書〉, 〈與李季鷹世瑮書〉, 〈答崔士集書〉, 〈答李參議書〉, 〈與任正言璞論文書〉, 〈答鄭東萊書〉, 〈答悔軒鄭伯英儁書〉, 〈追和士集成大別詩序〉, 〈賀元騎省景夏壯元序〉, 〈離騷經後序〉, 〈自敍〉, 〈雜說〉, 〈念佛契序〉, 〈杜機詩選跋〉, 〈贈鄭幼觀瀅序〉, 〈鄭蒙仙書序〉, 〈贈鄭大哉元始序〉, 〈景雲齋與鄭主履寅讀書記〉, 〈洛雲大師碑銘〉, 〈書孫仲深書玄史記抄〉, 〈莊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또 우수한 작품을 창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文學에 대한 연구가 활발치 못하여[3]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필자는 미숙하나마 먼저 靑泉의 文을 중심으로한 文學觀을 살펴 보고, 다음에 그의 詩作品에 나타난 樣相을 검토해 보면서 具體的인 그의 詩論을 추출하여 詩作品과의 관련성을 찾은 다음 靑泉詩論의 특징을 밝혀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나타난 결과가 우리 漢文學史에서 어떠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朝鮮後期 漢文學에 어떤 양상으로 接脈되는가를 아울러 고찰코자 한다.

2. 文 學 觀

靑泉은 '文'과 '文學'을 區別해서 쓰지 않았다. 그가 말한 文은 오늘날의 文學과 文章의 槪念을 함께 包括한 것이기에 本稿에서는 文을 文學의 槪念으로 받아들여 다루고자 한다.

靑泉의 文學觀은 여러 가지 側面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그의 氣質과 成長過程을 중심으로 찾아 보기로 한다. 靑泉은 密陽의 시골 농촌에서 태어나 모친으로부터 간혹 글을 배웠고 村老들에게 약간의 助言을 얻었을 뿐, 오로지 獨自的인 生活을 하면서 자랐다. 어려서부터 僻村의 自然 속에서 아무런 구애됨이 없이 자랐음을 다음과 같은 글에서 알 수 있다.

本乎天性甫 離懿不喜從塾師章程業[4]

益由於性 本局滯 才乏通 方且以生長荒 起自耒耜 遊藝之路 未廣 而守株癖 未化故也[5]

余生長山南農家 目不見古人奇書 而天性有好古之癖[6]

子盜跖篇後題〉, 〈題楚辭卷末〉, 〈題士集秋響別詩後〉, 〈題金稷山東賢詩藁後〉, 〈叙與尹太學士淳論文事〉, 〈題李仲浩瀰詩卷〉, 〈書許生濟西漢文抄〉, 〈詩書正宗書〉, 〈李白詩序〉, 〈矽陰古鼎後序〉, 〈終南庄賞花詩軸序〉 등이 있다.

3) 부분적인 연구로서, 金泰俊 교수가 《海遊錄》을 中心으로 紀行文學的인 측면에서 이야기 했고, 趙東一 교수가 人物傳說的인 面에서 다루었다. 筆者가 拙稿 〈申維翰의 漢詩研究〉에서 靑泉의 詩를 中心으로 다룬 바 있는데, 本稿는 그 중 文學觀과 詩論부분을 더 深化시킨 것이다.

4) 《原集》, 卷三, 二十七張, 〈與任正言璞論文書〉.

5) 《續集》, 卷二, 二十五張, 〈雜說〉.

6) 《續集》, 卷二, 三十三張, 〈離騷經後叙〉.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余故生長荒野 安能聞大雅少也[7]

維翰 起山南農家 地僻而陋 目未覩古今百家之書[8]

이 글에서 중요한 점은 스승으로부터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荒野에서 자랐으며, 天性에 好古之癖이 있었고, 見聞이 좁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그를 野性的이면서 感情的인 性格을 가지게 했고 때로는 狂的인 모습을 나타내게까지 했다.[9] 靑泉은 文學作品 習作期에도 一般 士大夫들처럼 書塾이나 家學의 엄한 規律에 얽매이지 않고 野鹿鳥獸처럼 自由奔放한 生活과 취향에 맞는 讀書로 文學的인 素養을 쌓았던 것이다.

다음에는 그가 공부한 내용을 통해서 그의 文學觀을 살펴 보고자 한다. 靑泉이 공부한 것을 보면 《山海經》, 《穆天子傳》, 《孝經》, 《琵琶行》, 《離騷經》, 《小學》, 《詩傳》, 《書傳》, 《史記》, 《八大家文》, 《論語》, 《孟子》, 《中庸》, 《周易》, 《周禮》, 《春秋》, 《尙書》, 《諸子百家》, 《典謨》, 《莊子》, 《老子》, 《佛經》 등이다.[10] 이러한 책은 일반 선비들이 공부한 책과 별다른 바가 없다. 그러나 어떤 책을 가장 집중적으로 즐겨 읽었으며, 또 그것이 그의 文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찾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靑泉이 특히 즐겨 읽은 것은 《山海經》, 《穆天子傳》, 《離騷經》, 《佛經》 등이다. 그가 공부한 내용과 자신의 생각과의 관계를 적은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余自幼讀書 篤好古人詩 從二南二雅 歷楚入漢[11]

我生之初 一物不帶來 由生入老 一事不係戀 獨於古文聲句昌歜之嗜……得尙書雙章片簡 已喃喃 學誦聞左丘司馬數行句法 輒鼓舞咿唔 當是時人 皆笑僕稚而狂[12]

獨嗜古文 韻語則離騷 文章則賈傳治安策 讀過千遍寢飯俱忘……余於故文 不喜讀諸子 於唐不喜昌黎 於宋不喜南豐 此皆古今人學文章者取以爲宗師 膾炙之所同嗜而余獨不然[13]

---

7) 《原集》, 卷三, 十四張, 〈書與李仲晦〉.

8) 《原集》, 卷六, 十二張, 〈叙與尹太學士淳論文事〉.

9) 靑泉이 뛰놀고 공부하던 모습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그가 어리고 미쳤다고 했다. 〈題詩書正言後〉 參照.

10) 靑泉이 공부한 書目은 그의 年譜, 行狀, 言行錄 기타 저술을 보고 작성한 것이다. 중요한 것만 뽑았을 뿐 省略한 것이 많다.

11) 《原集》, 卷六, 三十三張, 〈題詩書正言後〉.

12) 《原集》, 卷三, 二十七張, 〈與任正言璞論文書〉.

13) 《續集》, 卷二, 三十五張, 〈雜說〉.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十五讀風雅 十六讀典謨 十七讀論語 喜其字琢圭璋如鍾磬……性又局狹 自謂刻畵古人 可得其眉髮形肖 而亦不知有生動氣魂之眞出[14]

握中只有平生手寫易詩書靑牛白法山海經數卷[15]

山海經汲冢書 光如玉璧 音中琅璆 是其通天壞[16]

翁 早悅山海經穆天子傳[17]

伽倻山下老死丈夫 而所與俱者 羲易佛書山海經數卷 嚼松飮泉[18]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靑泉은 어려서부터 古文奇書의 文學作品을 즐겨 읽었고, 文學에 대한 소질이 있었다. 또 윗 글에서 중요한 점은 靑泉 자신만이 지닌 독서태도를 엿볼 수 있게 해주고, 靑泉은 무척 외로운 環境에서 生活했음을 짐작케 해주는 것이다. 靑泉이 文學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읽은 것은 《離騷經》이다.

(余)五六歲時 從人受書 不喜讀唐宋詩文 欲學離騷 先生笑曰 是其旨深而辭晦 長老之所聽瑩 若何以能解 卽對曰 雖不曉旨 舌在也 願受其音 先生異之 時時授章句 旬日而竟篇 卽大喜 坐臥遊戲口不輟誦 自以塗鴉之墨 細書成卷 置之懷袖出入與皆弊 卽易以新之 紙凡數十易 終不肯借人書一句, 年旣長而好之深篤 前後誦讀 殆不能算 盖余不復就先生講論旨義 而便覺心胸灑灑 開卷瞭然……余嘗謂 世之好離騷者 莫如我 解離騷者 莫如我 而文不得離騷者 亦莫如我.[19]

윗 글은 靑泉의 文學이 〈離騷經〉을 中心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離騷經〉에 대한 靑泉의 애착과 집념은 他意에 의한 것이 아니고 自意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는 바로 靑泉의 文學觀과 직결되는 것이다.

靑泉이 文學에 대해 他人들과 집중적으로 討論한 것은 '與任正言璞論文書'와 '叙與尹太學士淳論文事'의 글이다. 이 글은 모두 論文形式의 글로 그의 文學觀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다. 尹淳과 討論한 글에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다.

14) 《原集》, 卷六, 十三張, 〈叙與尹太學士淳論文事〉.
15) 《原集》, 卷三, 四十四張, 〈答悔軒鄭伯英僑書〉.
16) 《原集》, 卷三, 二十八張, 〈與任正言璞論文書〉.
17) 《原集》, 卷一, 二張, 李瀰, 〈原集序〉.
18) 《原集》, 卷三, 三十四張, 〈答金麟錦光遂書〉.
19) 《續集》, 卷二, 三十三~三十四張, 〈離騷經後叙〉.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余所見極狹 而所好極偏 雖古之斷章叢簡如山海經汲冢書黃庭石鼓之類 亦貨而求之 不喜讀儒家菽粟語 所以爲叙述之體 往往學古文.[20]

靑泉 자신이 古文을 즐기는 이유를 소견이 좁고 좋아하는 바가 편협함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儒家의 文學을 즐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글의 분위기로 봐서 이 말 속에는 다른 사람들은 儒家의 經典을 많이 읽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自己의 文學觀은 외로왔고, 交遊者가 적었으며 文學理論에 대한 갈등이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靑泉도 詩經과 書經은 중요시 다루었다.[21] 任璞과 文學을 論한 글을 보기로 한다.

年長而讀書 所紀文武詔制賈傳治安策 百千過 始信文章左史而不在他 又就儒家所習四書 而獨喜論語 以爲是洙泗門人 善記夫子一動一靜 模寫入神 故其文得四家之體 所以句琢字鍊 式如玉 式如金 旣覃精會心 十數寒暑 便能嘖嘖 私語曰 自有天地人以來 得其精英之最現曰文 指其光華之獨著曰文 文非偶然而作也 亦不可然而名也 天之文 日月星辰 雲霞電霓 地之文 金三品 土五色 琳琅珍奇 人之文 黼黻冠冕 圭璋宮室 河出圖 洛出書 龍師鳥官 鳳儀麟趾 皆文也……天下有舍是而稱爲文字 一曰儒家訓誥學 亦有本源矣 夫子繫易孝經 以至曾思大學中庸 誨人明理盡性 所以諄諄焉……天下家行戶踐 如菽粟水火 是聖人設教之言 而非吾所謂文也 世無孔子曾思 不敢作是言妄擬者 天下誅之 雖才如子雲 學如仲淹 一出言而獲僭冒之罪 其淺者 貪常嗜琐 掇拾塵土 甘心爲馬鄭家廝役矣……唐韓退之始立操瓠家集卷門戶所作篇目 各有制度 曰序曰記 曰書牘 曰誌銘 曰傳贊論辨 設名雖殊同 出於紀事紀言紀物之法 則皆史體也 彼以道學自任動引鄒孟氏爲準故 原道諸篇 亟用儒家諱人語 其爲送窮文進學解 傷於夸矣 毛穎革華傳 雜於諧矣.[22]

이 글은 百行에 가까운 長文의 일부로 그의 文學觀을 포괄적으로 다룬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 나타난 靑泉의 생각을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文의 槪念을 넓게 생각한 점이다. 宇宙의 모든 對象이 文이 될 수 있고 文의 구실을 할 수 있어서 天之文, 地之文, 人之文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儒家의 菽粟語나 儒家訓誥學은 文이

20) 《原集》, 卷六, 十二張, 〈叙與尹太學士淳論文事〉.
21) 吾所謂古文莫尙於詩書 詩變而楚漢樂府之章 書變變而左丘龍門之史, 《原集》, 卷四, 二十一張, 〈贈鄭幼觀瀾序〉.
22) 《原集》, 卷三, 二十七~二十八張, 〈與任正言璞論文書〉.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아니라는 점이며, 세째는 韓愈의 文은 儒家 詩人語를 써서 올바른 文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馬融 鄭玄 등 經書註釋家들을 혹평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靑泉이 '文'을 文章만이 아니고 文學을 포함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또 文章全體의 흐름으로 보아서 靑泉의 이런 論旨에는 四書五經을 필수적으로 독서하고 詩人으로서의 技能을 가지는 儒者들의 文學을 否定한 裏面이 짙게 보인다. 이것은 當時의 文學이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다는 해석도 가능하게 한다.

靑泉은 韓愈의 文學을 비판하는 대신 蘇東坡의 文學을 찬양했다.

> 余謂 滑稽之體 本因莊列寓言而生 至韓文毛頴革華之類 而卑賤可壓 此文特以墨君爲題 甚新其言 與可相厚處 種種寄異復見 實坡筆頭 造化無所不至也.[23]

靑泉은 詩作品이나 기타 簡片에서 東坡를 자주 들먹였고 東坡文學을 찬양했다. 이 점 또한 그의 文學觀이나 思想이 東坡와 類似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한 좀 더 깊은 穿鑿을 위해서는 中國文學과 韓國文學의 比較文學的 견지에서 다루어져야 하기에 다음 기회로 미룬다.

그 외에도 靑泉은 佛教나 道教的인 面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靑泉은 佛僧과 잦은 交遊를 했고 자신이 佛經을 읽었고 佛教에 관한 글을 쓰기도 했다. 그가 쓴 글중 〈法廣寺釋迦佛舍利塔重修碑文〉,〈洛巖大師碑銘〉, 〈新刻松雲大師奮忠紓亂錄跋〉, 〈念佛偈書〉 등은 중요하며, 그는 또 〈松雲大師奮忠紓亂錄〉을 편집했고 佛教的인 詩를 많이 창작했다. 다음과 같은 글에서 그의 文學과 佛教와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 讀金剛經 釋迦有言 一切世間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 亦如電[24]
>
> 僕之崎嶇七尺 已無所望於斯世 遭難以後 洛中士大夫 絕無一片紙相訊 每年歷日無以驗花葉 沈沈忽忽 便與老農輩乞田間社酒爲娛願已足矣 所以病間之暇 只對一部金剛經 此是第一工夫[25]
>
> 吾傍有金剛圓覺維摩諸書 沾沾玩掌曰 此路頭無縛無解[26]
>
> 余 丙辰春 遇師于海印寺 得一 二談 問如聊鍾 骨幹蒼直語默 無絲髮 異於人 湛然相

23) 《續集》, 卷九, 四張, 〈墨君堂記〉.
24) 《原集》, 原三, 四十三張, 〈答悔軒鄭伯英僞書〉.
25) 《原集》, 卷三, 二十張, 〈答崔士集書〉.
26) 《原集》, 卷三, 위와 같은 곳.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對 已知其四相不生表裏皆眞[27]
時時與山僧 讀佛偈 洗了一種癡想[28]

이러한 기록을 종합해 볼 때, 靑泉은 晩年에 佛敎에 완전히 傾倒되어 있었고 그의 文學觀은 佛敎思想과 融合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또 僧侶들과 交遊한 내용을 보면, 靑泉文學이 당시 승려들에게 널리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靑泉의 道敎的인 文學思想은 다음 글에 잘 나타나 있다.

儒者雅言 莊生著書 侮孔氏 至盜跖一篇 擧而畀水火曰 周也 敢毁天而譬曰 其有一二爲莊生者則曰 盜跖之著 非莊生 莊生意在宗孔氏 余謂侮與宗 皆原於有意 莊生亡是也 槪觀其書 以天地爲塵垢 以萬物爲糖粃 方且騎日月而翱翔 方且御風雲而敎游 其稱 方域也 人群也 山川謠俗 必在六合之外 窈冥之鄕 五常之所 不能格 三王之所 不能漸焉 夫豈眞有是哉 夫子之見惡人 有道即於衛靈公南子 陽貨之倫 門人必孰觀而詳記 至今成籍 具在何嘗言盜跖彼其張皇 亦豈眞有是哉 特以所得者虛無 而所發者放肆言之涉於侮孔氏 不自知其非也 事有關於宗孔氏 不自知其是也 忘是非 非絀愚 而入於無意 卽所謂謬悠之說 荒唐之言 無端崖之辭 時縱恣而不儻者 是夫夫自道也.[29]

이 글은 儒敎의 文學觀과 道敎의 文學觀을 比較해서 말하고 당시 儒者들이 莊子의 文學을 그릇되게 생각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이 글은 靑泉의 文學 評論 態度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一面이 있다. 즉 是非와 細愚를 떠나서 客觀的인 立場에서, 先入觀을 가지거나 옳고 그름을 가리려 들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文을 대해야 올바른 自道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생각은 당시 사람들에게 說得力있는 論理이며 오늘날 文學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도 龜鑑이 될만한 것이다. 이 글에서 靑泉은 儒敎나 道敎 어느 한 가지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儒敎보다는 道敎의 立場에서 이야기 했다고 할 수 있다.

以上과 같은 文學觀 외에도 靑泉은 경제에 관한 저술을 했고[30], 그의 代表的인 文學作品 〈海槎東遊錄〉이 國土, 山川, 氣候, 歷史, 都市, 風習, 産業 衣服, 飮食, 家屋, 人物, 官制, 兵制, 女俗 등에 대한 실지의 觀點을 그대

27) 《原集》, 卷五, 三十一張, 〈洛巖大師碑銘〉.
28) 《原集》, 卷三, 二十四張, 〈答李參議書〉.
29) 《原集》, 卷六, 八張, 〈莊子盜跖篇後題〉.
30) 先生之纂述富矣 於永哀二何錄 見誠孝之篤 於拱進錄 見忠愛之至 觀枕泉錄 可以知經濟之術(《原集》 卷十一, 二十九張, 〈言行錄〉).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로 나타낸 점과 朝鮮 後期 實學者들의 文學觀과 類似한 점 등으로 보아[31] 實學的인 思考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도 다음 기회에 깊이 다루고자 한다.

3. 詩의 樣相

본 항에서는 앞에서 전개한 靑泉의 文學觀이 그의 詩作品과 어떤 상관성을 지니는가를 살피고 다음 항에서 논의될 그의 詩論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靑泉의 詩作品은 총 646수에 달하나 詩題가 같은 여러 작품을 한 편으로 보면 311篇이 된다. 그의 작품은 古詩, 絶句, 律詩, 排律, 樂府詩, 新詞 등 다양하다. 이러한 一般的인 시의 類型에 따라 그의 시를 검토할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그의 詩性格과 그가 지닌 作家的인 特質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聯作詩, 長篇詩, 六言詩, 唱和詩[32]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더 效果的이다.

聯作詩는 그가 남긴 311편 중 78편으로 41%에 달한다. 이들의 詩는 대개가 贈與詩나 和答詩로서 全體와 部分이 갈 照應되는 짜임새가 있어, 有機的인 질서를 가졌다고 하겠고, 詩想이 자유롭고 表現이 奇峻하다고 하겠다. 특히 全體와 部分의 관계를 중시해 다루어야 할 聯作詩는 한 題目에 律詩나 絶句 여러 수가 있는가 하면 五言詩와 七言詩가 共存하는 경우도 있다. 律詩나 絶句만으로는 풍부한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없어 여러 수의 작품을 쓰게 된 것 같다. 또 한편으로는 律詩나 絶句 등 近體詩의 形式에 불만을 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試圖에서 온 결과로도 볼 수 있다. 〈日東竹枝詞〉 34首가 代表的인 作品이라 하겠다.

長篇詩는 聯作詩와는 달리 〈詩經〉이나 〈楚辭〉와 비슷한 形態의 詩로서 한 제목 아래 한 수의 긴 시를 쓴 작품을 일컫는다. 韻律이 아주 자유롭고 詩想이 象徵的인 面이 있으면서도 具體的인 表現을 한 점이 보인다. 또 修辭法이 어떠한 形式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다. 이 장편시는 中國의 樂府詩나 詞賦 등에서 一部의 素材를 가져온 것도 보이고 우리 나라의 〈嶺南樂府〉에 나오는 素材와도 닮은 作品이 있다. 靑泉이 이렇게 長篇詩를 즐겨 쓴 것을

31) 靑泉의 文學觀은 李瀷, 李睟光, 丁若鏞의 생각과 一脈 相通하는 점이 있다.
32) 本稿에서 展開되는 詩의 種類에 대한 명칭은 一般化된 것이 아니라 靑泉詩의 性格에 맞게 또 論述의 편의상 붙인 것임을 밝혀둔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보면 그의 詩가 琢語로서 凝縮된 표현보다는 即興的이고 散文的인 要素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現象은 그가 **離騷**經 같은 長篇詩를 제일로 삼았던 文學觀과도 相關된다. 長篇詩로서 우수한 作品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는 〈屛風詩〉, 〈長歌行〉, 〈長安少年行〉, 〈竹林風雨歌〉, 〈君馬黃曲〉, 〈祖江行〉, 〈景雲齋歌〉 등이 있다.

六言詩는 律詩나 絶句처럼 平仄法이나 押韻法이 一定하지 않는 것으로서 六言으로 된 詩를 뜻한다. 六言詩는 대부분 靑泉이 日本에 가서 그 곳의 景物을 보고 읊은 것이다. 靑泉이 일본에 가서 六言詩를 쓴 까닭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日人들에게는 律詩나 絶句의 近體詩가 많이 알려졌기에 形式의 자유로움을 보여주기 위해 지었다고 할 수도 있겠고, 시를 지으려는 意圖가 六言詩에 맞았기 때문이라 볼 수도 있다. 또 **離騷**經을 많이 읽어서 **離騷**經의 形式이 몸에 배어서인지도 모른다. 그가 지은 六言詩를 보면 律格이 2·2·2 또는 2·4, 4·2 등으로 나타나며 繫詞가 省略되는 등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漢代의 司農 曲永에서 비롯되어 오래도록 愛用되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愛用된 詩는 아니다. 近體詩를 자주 대하던 사람에겐 뭔가 이상하고 調和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렇지만 靑泉은 **離騷**經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어색함이 없는 표현을 했다.

唱和詩는 製述官으로 日本에 가서 日本 文士들과 어울려 즉석에서 읊어주고 받은 作品을 指稱하는 것이다. 이 시는 대부분이 律詩나 絶句의 近體詩들로서, 靑泉의 재치와 능숙한 표현력을 엿보게 하고, 韓日唱和集인 〈和韓唱和〉와 〈韓客筆語〉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日人作品과 對比硏究에 容易하고 對比硏究를 통해야만 올바른 시의 意味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다. 日人들의 詩는 靑泉을 만난 기쁨과 靑泉詩의 우수성과 靑泉을 離別해야 하는 슬픔을 노래한 것이 많다.

作品의 內容은 아주 多樣하고 主題도 個別作品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內容을 分類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 또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靑泉詩의 內容的인 特性과 文學觀, 詩論 등의 相關關係를 생각해 볼 때, 紀行詩, 詩酒에 대한 詩, 佛敎的인 詩, 道敎的인 詩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보다 더 效果的이라 생각된다.

紀行詩는 日本을 旅行하면서 他國의 기이한 風物을 주로 읊은 것으로 〈海槎東遊錄〉에 50여편이 실려 있다. 이 시의 특징은 대부분이 敍景的인 詩로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서 散文으로는 표현이 미흡한 부분을 素材로 다루었다. 主題도 異國의 風景이나 習俗에 대한 自身의 느낌을 나타내어, 축약된 一般的인 漢詩와 다르다. 詩語에도 日本語를 자주 인용했고, 日人들의 習俗을 喜劇的으로 다루기도 했으며 우리 民族의 우수한 점 등을 다루기도 했다. 특히 이 紀行詩는 紀行文인 〈海槎東遊錄〉의 散文과 散文 사이에 끼여 있기 때문에 〈海槎東遊錄〉과 함께 연구될 때 더 바람직한 理解가 될 것으로 믿는다.

詩酒에 대한 詩는 主題, 題目, 素材에서 詩와 酒에 관한 表現을 한 作品을 指稱하는 것으로 作家的 氣質이 잘 나타난 作品이다. 자기와 가장 친하게 지내던 崔成大[33], 任璞, 沈師周 등과 어울려 술에 취한 자신의 마음을 諧謔的으로 표현하기도 했으며, 시골 농삿군으로부터 술을 얻어 먹고 외로운 자신의 人生과 알아주지 않는 자신의 文學에 대한 하나의 絶叫로 보이는 작품도 있다. 또 自然과 和合한 自然人으로서의 抒情的 自我가 지닌 즐거움과 官職이나 富貴功名에 대한 隱喩的인 逆說 등을 표현한 作品도 있다.[34] 이러한 內容에 속하는 詩는 그의 다른 詩와는 달리 感情이 激發하여 狂的으로 表現된 곳을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다.

佛敎的인 詩란 佛僧에게 贈與한 詩, 主題나 素材에 佛經을 나타냈거나 佛敎를 찬양한 詩를 일컫는다. 佛僧에게 贈與한 詩는 〈雪松大師〉, 〈英禪大師〉, 〈演初上人〉, 〈華山上人〉, 〈訥人〉, 〈知門〉 등 주로 伽倻山 海印寺와 그 외 작은 庵子에 거처하던 승려에게 준 것들이다. 또 이 佛敎的인 詩는 그의 文學活動 時期로 보아서 最後의 作品들로 靑泉이 60歲를 넘어서 創作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 詩들은 그가 젊을 때의 奇峻했던 詩風과는 달리 매우 의지적이고 차분한 感情으로 內面의 깊은 意識을 나타낸 것이다.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나 佛敎의 좋은 면, 傾倒된 자신의 처지는 作品의 表現에서도 알 수 있다. 即興的인 표현보다는 깊이 생각한 표현이 많고 時間이나 空間的인 面에서 事物을 觀照한 것을 이들 시에서 찾을 수 있다. 佛敎的인 詩가 人生의 老年期에 주로 쓰여졌고, 白髮老眼에 비친 人生觀이나 世界觀이 投

33) 崔成大는 字가 士集이며, 號는 杜機이다. 1732년(영조 8년) 庭試文科丙科에 급제한 후 대사간을 지냈으며, 靑泉과는 절친한 사이였다. 《淸脾錄》에 '或云 申崔爲風世夫婦 靑泉爲夫 而杜機爲婦' 《原集》, 卷 1, 〈筆園夜話有述五十韻幷序〉에 '夫世之同好者 以吾非士集 莫可聞此言 亦知士集非吾 莫可發此言'이란 표현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들 사이를 짐작할 수 있다.

34) 吾斯知富貴與功業在人而不在我 惟文章不在人而在我 在我者 非本分與君 盡思之談竟矣, 《原集》, 卷五, 十張, 〈景雲齋與鄭主簿寅讀書記〉.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影된 作品으로 數的으로는 적더라도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道敎的인 詩라는 것은 詩作品 속에 神仙思想, 老莊思想이 깃들거나 이에 대한 표현이 있는 시를 지칭하는 것이다. 靑泉은 이러한 詩 속에 神秘한 事物의 표현과 人間社會에 存在하지 않고 理想世界나 天上의 世界에 存在하는 架空的인 內容을 다루었다. 靑泉의 道敎的인 作品은 51편으로 그의 全 作品 중 17%에 달하며 그가 長年期에 주로 지은 것이다. 作品에 즐겨 쓴 詩語로는 '寶地' '福地' '織女' '神仙' '仙謫' '神虬' '寶焰' '鳳凰' '斗仙' '仙侶' '仙羣士' '鍊液' '丹砂' '仙臺' '鬼神' '仙嶂' '仙梁' '神雨' '仙鴻' '麻姑' '葛洪' '永郎' '偷桃' 등 매우 많다. 作品의 主題는 天과 地를 對立시켜 무한한 時空과 다양한 표현으로 상상력을 일으키는 자신의 理想을 나타낸 것이 많다. 이러한 作品은 그가 어려서부터 〈山海經〉과 古文奇書를 많이 읽었다는 작가 자신의 말과 相應되는 것이다. 道敎的인 詩에서 仙界에 대한 願望과 넓은 空間을 나타낸 것은 無爲自然의 世界觀을 詩作品으로 그려 본 것이라 하겠다.

4. 詩 論

詩 자체에 대한 論理를 詩論이라 한다고 할 때 이 詩論은 詩의 側面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靑泉은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히 세 가지를 강조한 것 같다. 즉 詩의 本質, 形式, 內容에 대한 것이 그것이다. 本稿에서는 이를 本質論, 形式論, 內容論이라 정하여 논술코자 한다.

1. 本 質 論

靑泉은 詩의 本質에 대해 깊은 理解를 했다. "詩란 무엇인가?"란 가장 根本的인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는 詩에 대한 見解를 나타내었다.

> 詩心聲也 今夫物華之征吾心 而觸之爲聲 芒芒乎反入於心 喜者蹈舞 悲者涕泗 其斯之異於穀音 而可以興 可以群 且怨乎哉……吾斯見古詩 盡在楚也 而世儒方且耳視族名曰 騷 而歧于詩 於乎 此其詩 不可復古而楚亦在亡 何有矣……余復曰 言惡乎作而詩 詩惡乎隱而楚 今子起伏於斯 勸而鼓掌 怒而裂眦 痛而疾首 咸其自已也 已而已而 朝暮得此 所以爲楚乎 夫待楚而楚 非善楚也 知不爲待楚而楚 庶乎三百篇矣.[35]

35) 《原集》, 卷六, 十張, 〈題楚辭卷末〉.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이 글은 靑泉이 詩에 대한 本質的인 문제를 다룬 귀중한 것이다. 演繹的인 方法으로 '詩는 마음의 소리이다.'란 命題를 앞세우고 조리가 整然하게 논술되었다고 볼 수 있다. 詩가 心聲임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물의 아름다움이 내 마음을 정복해서 느껴진 것이 소리가 된다.'고 했다. 그렇게 본다면 事物은 어떤 對象이 될 수 있고 心은 作家의 心的 충동이라 볼 수 있으며, 聲은 하나의 작품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나아가 詩를 이루는 기본적인 要素는 對象, 作家, 作品이란 보편적인 論理에 接近하게 된다. 詩가 心聲이란 말은 靑泉만이 가진 獨創的인 理論이 아니라 하더라도 詩의 本質에 대한 올바른 생각은 인정할 만 하다. 윗글에서 또 중요한 것은 喜者踊舞 悲者涕泗라 하여 詩의 기능을 나타낸 것이며, 말로서 詩를 지으려해도 詩가 되지 않고 詩를 隱喩한다고 해서 楚辭가 되지 못하며 楚辭를 지으려고 해서 楚辭가 된 것은 올바른 楚辭가 아니라고 했다. 저절로 이루어진 마음의 소리가 올바른 詩요, 楚辭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윗글의 全體 要旨는 詩란 모방이나 作家의 意圖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마음의 충동에 의한 自然發生物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靑泉은 心聲이란 주장에 이어 '夫惟心和則氣和 氣和則天地位萬物育焉'[36]라 표현했다. 즉 心聲이란 心和한 소리이며, 詩도 心이 和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靑泉이 詩에 대해 언급한 것은 心을 尊重하는 哲學的인 理論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2. 形 式 論

漢詩의 形式은 여러 가지이다. 內容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行과 聯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글자 수에 따라 나누기도 한다. 古詩, 樂府詩, 近體詩, 五言과 七言에 따른 律詩, 絶句, 排律 등의 詩形式에 平仄法, 押韻法, 對句法, 修辭法이 아울러 첨가되어 하나의 作品이 創作되는 것이다. 詩의 種類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漢詩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규칙을 지니고 있다. 특히 靑泉이 活動하던 朝鮮後期는 近體詩가 汎濫하던 시기이다. 이런 때에 靑泉은 詩의 形式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 吾于詩 不以規矩 不以格律 不以聲容色澤……今吾所由之際 無日而非詩 詩何嘗有族有宗……嗟呼 余之不幸而生乎今 不得聞往哲之玄視[37]

36) 《原集》 卷四, 十二張, 〈賀元騎省景夏壯元序〉.
37) 《原集》, 卷1, 二十八張, 〈筆園夜話述五十韻幷序〉.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여기에서 靑泉은 詩는 規矩와 格律과 聲·容·色·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따라서 詩에는 法이나 祖宗이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윗글의 裏面에 깔린 내용으로 보아서 靑泉은 당시에 중시하던 詩의 形式을 根本的으로 否定하였음을 알 수 있다. 靑泉이 위와 같은 글을 쓴 것은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詩의 規矩나 格律을 중시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또 靑泉은 그 전부터 내려오던 支配的인 理論에 대해 자신의 理論을 對立시키면서 자신이 늦게 태어나 옛날 賢哲들의 詩를 보지 못함을 안타까이 여기고 있다. 이러한 近體詩 否定觀을 지녔으면서도 古詩에 대해서는

> 詩取周之風雅頌爲法 書取唐堯以下典謨訓令爲法 以詔天下萬世 是如宮室衣裳弧矢舟車法制一定天下由嗣 而有楚騷漢郊祀古詩十九首 詩之家嫡也[38]

라 하여 古詩의 正宗을 인정했다. 이 글을 보면 앞에서 詩의 形式을 부정한 것은 近體詩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詩論은 그의 文學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文에 있어서는 古文을 중시하는 理論을 폈다면 詩에 있어서는 詩經이나 楚辭같은 古詩를 존중했다는 것이다.

靑泉은 詩를 배우고 창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형식에 얽매여 그 형식에 맞게 시를 짓다가 自然性을 잃게 되는 것을 안타까이 생각하였다.

> 自今先取 二南九騷漢魏之語 晋宋之婉 學其言寡而旨遠 貌古而思深 服習日久 自然聲安而意廣 可以唐 可以爲艷詞之調 無所處而不當此.[39]

라 하여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른 시가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 글은 靑泉의 詩에 대한 價値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말이 적으나 뜻은 멀고 옛것인 것처럼 보이나 생각이 깊어지는 것을 알아야 저절로 소리가 넓어지며 뜻도 따라서 넓어지게 된다는 것에서, 올바른 시는 형식을 탈피하여 마음에서 자연히 우러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靑泉의 작품을 보면 詩形式이 전반적으로 자유롭고, 古詩 系統의 詩를 많이 지었으며, 平仄法과 押韻法에 맞지 않는 詩가 상당히 많고, 詩想이나 詩의 表現이 매우 即興的인 것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日本에 가서 즉석에서 수천 首의 詩를

38) 《原集》, 卷六, 三十三張, 〈詩書正宗書〉.
39) 《原集》, 卷六, 二十張, 〈題李仲浩瀾詩卷〉.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뿐인 것을 보더라도 그의 이러한 脫形式에 대한 理論이 작품과 연결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靑泉은 近體詩를 부정하면서도 상당한 수의 近體詩를 지은 것은 그의 理論과 作品이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가 겪어야 했던 時代的인 限界로 보아진다. 이 점은 靑泉 詩論의 否定的인 側面이라 하겠다.

靑泉은 中國의 詩를 모방해서 짓는 창작 태도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특히 近體詩의 用事나 修飾에 대해서 不滿을 품었고 우리 나라의 古今 詩人들이 中國詩를 많이 모방했음을 무척 비난했다.

> 彼夫 假中國而爲詩者 如夢如幻 吾知其一朝澌滅矣 於戲 鴨綠以東 古今操觚家 識此意乎 由此塗乎.[40]

靑泉의 이러한 말은 당시는 물론 後代 사람까지 反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詩는 中國詩가 될 수 없으며 우리의 感情은 中國人의 감정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靑泉은 이러한 말을 하면서 우리의 노래를 짓기 위해 애쓴 흔적도 보인다.[41] 中國의 詩를 認定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 詩人들의 모방을 認定하지 않았다.

3. 內 容 論

지금까지 인용한 靑泉의 글에서도 詩의 內容에 대한 면을 조금씩 볼 수 있었다. 이번에 다룰 內容論은 앞의 두 항에 이어 靑泉이 詩의 內容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것이다. 主題나 題材, 構造 등 個別作品의 內容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漢詩가 가질 수 있고 모든 漢詩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만한 어떤 논리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 吾意 三百篇詩之旨 大抵 實中有虛 如月在水 虛中有實 如鏡照物 莊子逍遙遊秋水諸篇 皆得此意 故文章最高 離騷一篇 天地開闢以來 詩詞創法之祖…… 觀其聲音情百節宛曲 無一字不出於愛君憂國至誠矢死靡他之意 而叙志行修潔則 曰佩蘭 曰餐菊 曰芙蓉 衣道君臣離合則 曰蛾眉 曰靈修 曰黃昏 期何言之曠也. 是其實中有虛 如月在水 駟玉虯而乘鸞以下 全是寓言……字字句句 一不用實語道破 又似無脈落無接處

40) 《原集》, 卷四, 十六張, 〈杜機詩選跋〉.

41) 靑泉은 民間에 흘러다니는 街巷俚語를 매우 중시했다. 이런 노래에서 오히려 詩의 참된 의미를 찾으려 했다. 代表的인 例가 善山地方에 떠도는 山有花歌를 素材로 〈山有花曲〉을 지은 것이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而畢意披雲捄翳 使有靑天白日 障蔽不得 是其虛中有實 如鏡照物 不囿文章之妙至於斯也.[42]

위의 글은 靑泉이 離騷經을 中心으로 찾아낸 하나의 理論이라 생각된다. 앞의 여러 가지 例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지만 이 글에서 靑泉은 詩의 범위를 아주 넓게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靑泉이 그의 저술이나 기타 片簡에서 詩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주로 長篇詩를 지칭함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靑泉은 賦, 詞, 曲, 歌의 性格을 지닌 것까지 詩에 포함시키는 廣義的인 생각이 있다고 하겠다. 靑泉이 離騷經이나 楚辭를 좋아했다는 것은 그의 著述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 있다.

莊子의 消遙遊와 秋收篇까지 시에 포함시켜 實中有虛한 것과 虛中有實한 詩를 이야기하고 있다. 또 아주 적절한 譬喩를 통해 논리를 展開시키고 있는데 '虛中有實'은 사물이 거울에 비치는 것 같다고 했고 '實中有虛'는 달이 물에 비치는 것 같다고 했다. 虛와 實은 여러 가지 일에 많이 인용되는 말이나, 詩作品을 虛實의 觀點에서 보아야 하고 詩의 內容에도 虛實의 兩面이 보여야 한다는 것은 靑泉의 卓見이라 생각된다. 윗 글에서도 그가 생각한 虛實의 槪念을 잘 표현하고 있으나 다음 글에서 그가 생각한 虛實의 개념을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다.

老氏佛氏莊列荀韓 亦各以其道 誘天下 道玄者 其言黝 道空者 其言幻 虛則汗漫 實則譟厲 視虞夏之文 燔火於兩曜矣[43]

實이 具體的·事實的·實質的인 心像이라면 虛는 幻想的·象徵的·抽象的인 心像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虛中有實은 表面으로는 抽象的·象徵的이지만 그 裏面에는 事實的·具體的인 心像이 나타나며 實中有虛는 表面으로는 事實的·具體的인 表現이나, 그 裏面에는 象徵的·抽象的인 心像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兩面性의 詩論은 獨創的인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결코 無에서 有를 창조한 것은 아닐 것이다. 자신이 어려서부터 읽은 책과, 겪어온 삶이 토대가 되었으며, 특히 그가 佛敎에 傾倒되어 많은 佛經을 공부했기에 空卽是色, 色卽是空의 原理가 간접적으로 作用했을지도 모른다.

---

42) 《續集》, 卷二, 三十三張, 〈離騷經後叙〉.
43) 《原集》, 卷三, 二十七張, 〈與任正言璞論文書〉.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虛實 兩面性의 論理는 虛와 實의 一面的인 논리의 缺點을 보완하고 詩의 構造的·力動的인 연구에 긴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長點이 있다. 따라서 靑泉의 詩作品도 이러한 觀點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그의 작품에서 이러한 면을 찾아 보면 近體詩보다는 古詩나 樂府詩에, 短篇詩보다는 長篇詩에 많이 나타나 있다.

靑泉이 다른 사람의 作品을 評論한 것이 여러 편 있다. 우리 나라 문학작품보다는 그가 日本에 가서 기록한 〈海槎東遊錄〉과 〈聞見雜錄〉의 文學篇이 代表的인 例가 되나 日人들의 文學에 관한 이야기가 주가 되기 때문에 韓日比較文學的인 立場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李白과 杜甫의 詩에 대해서 客觀的인 評을 한 것이 몇 줄 보인다.[44] 이는 그의 詩論을 理解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이다. 우리 나라 詩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대부분이 자신과 친히 交遊하던 사람의 詩集 序跋文을 쓰면서 칭찬 위주의 評을 했기에 그의 詩論을 理解하는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5. 文學史的 考察

앞의 여러 항목에서 거론한 靑泉의 文學觀과 詩論이 文學史的인 面에서 前後와 어떤 脈絡을 지니는가를 따지는 것이 본항에서 展開할 내용이다. 그렇게 하려면 靑泉과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을 모두 열거하고 전후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하여 많은 사람의 저술과 문집을 읽고 뽑아야 한다. 이러한 점이 어떤 작가에 대한 文學史的 硏究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다. 이런 작업에는 길자 個人의 能力과 時間의 限界가 있기 때문에 靑泉이 차지할 위치와 現在까지 연구된 업적에 의거하여 그의 脈絡을 더듬어볼까 한다.

우선 지금까지 文學史에 거론한 靑泉의 위치를 보면 그가 지녔던 事實에 비해 대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海槎東遊錄〉과 奇峻透拔한 그의 文章은 올바르게 평가했다고 생각되나, 〈海槎東遊錄〉의 명칭, 生涯, 家系, 作品世界, 文學觀, 詩論, 思想 등은 歪曲되게 나타났거나 言及이 없다.

靑泉은 조선 후기, 특히 17~18C 文學史에서 하나의 큰 봉우리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그의 文章과 詩가 우수하면서 특히 古文에 집착했다는 점, 詩와 詩論이 照應을 이루면서 당시 사회의 詩文을 부정한 점, 儒

44) 世爲李杜以詩齊名 五七言長篇 宜有輕重 而杜之律李之絕 固是連城雙璧……李則賦與文皆輕率 無法大鵬賦及所上荊州書 亦無風骨《續集》卷二, 三十六張, 〈雜說〉.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學者들의 文學을 부정한 점, 實學思想이 엿보인 점, 道敎的 思想과 佛敎的 思想을 아울러 지닌 점을 들어 증명할 수 있다. 靑泉의 이러한 위치가 文學史的인 硏究에서 갖는 의의는 靑泉과 文學觀이 다르고 古文을 否定하거나 近體詩를 숭상하며 당시 사회의 詩文을 인정했던 사람과의 대비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시대의 文學의 實相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靑泉은 崔致遠과 類似한 생각을 했다. 여러 사람이 孤雲과 같은 생각을 했겠지만 특히 靑泉은 꿈에서까지 孤雲을 만나는 등 孤雲을 매우 思慕했다.[45] 晩年에는 伽倻山에 들어가 景雲齋를 짓고 孤雲을 생각하며 詩文을 창작했다. 孤雲 역시 人生觀이 佛敎的으로 傾倒되었던지 佛刹과 佛僧에 대한 많은 시를 창작한 점[46]은 靑泉과 비슷하다.

靑泉은 許筠과도 여러 가지 면에서 脈絡이 닿는다. 許筠이 儒家의 道가 獨點的인 의의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黃帝, 老子, 諸子百家의 도를 두루 認定했듯이[47] 靑泉도 老子, 釋迦, 列子, 荀子, 韓非子는 각각 그 道로써 天下의 道를 화유한다고 하여 東洋의 여러 사상을 인정했다.

靑泉과 金萬重도 佛敎文學的인 立場에서 脈絡이 닿는다. 金萬重의 佛敎는 佛敎 그 자체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기 보다 주자학에 대한 비판을 전개할 수 있는 논거로서 더욱 긴요하게 여겨진 것은 靑泉이 朱子學에 대한 批判으로서 뿐만 아니라 불교 그 자체의 의의를 인정한 것과는 다소의 차이점이 있다.

洪萬宗은 '詩非天得 不可謂之詩'[48]라고 하여 靑泉의 詩論 중 形式을 벗어나 자연히 이루어진 올바른 詩라고 한 것과 유사하다. 눈을 놀라게 하고 마음을 꿰뚫을 정도로 놀라운 수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詩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한 수식은 오직 비단을 잘라서 만든 꽃과 같아서 보기에는 빛이 나지만 살아 있는 것이 아니며 경박한 무리들이 벌이는 광대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말로써 빛깔이 살아 움직이게 할 수는 없다.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天得이어야 한다. 천득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질없는 인공 때문에 가리워지고 이지러진 본연의

45) 今旣收扁曰 景雲齋 地在伽倻山下 寓慕於孤雲故也. 《原集》, 卷三, 三十二張, 〈答金麟瑞光遂書〉.

46) 尹榮玉, 《新羅詩歌의 硏究》, 1980, pp. 318~319.

47) 趙東一, 《文學思想史試論》, 1978, p. 176.

48) 洪萬宗, 小華詩評, (洪萬宗全集, 下).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생명을 되찾는 길이다.[49] 靑泉도 天機에 의한 자연의 소리가 되어야 하며, 인공을 가하지 않아도 저절로 소리가 커지고 뜻이 넓어진다고 했다. 홍만종의 文學은 儒家的인 程朱學보다는 道家思想을 중시하는 文學思想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은 그의 저술에서도 찾을 수 있다. 洪萬宗이 道敎思想에 더 가깝다면 靑泉은 佛敎思想에 더 가깝다고 하겠다.

이 밖에도 南孝溫은

> 太古之時 四岳之氣完 人物之盛全 樵行而歌冷者 爲標梅擊壤之歌 守閨而永言者 爲漢廣標梅之詩 初不用功於詩 而自精全 自後人心漓澆 風氣不完[50]

이라 하여 詩에 있어서의 수식이나 彫琢이 심한 시를 좋지 않게 생각했다. 人心이 漓澆하여 風氣가 不完하다고 한 것은 靑泉의 心和에 대한 말과 相通한다.

李瀷은 '三百篇之流爲五七言 即橘樹之江北也 又轉爲長短律尤甚害'[51]라 하여 詩의 形式과 韻律을 부정하였는데 이는 靑泉이 形式을 否定한 것과 유사한 점이 있다.

李睟光은 '夫詩者心聲也 以此而言水之聲卽詩之聲 山之色則詩之色'[52]이라 하여 靑泉의 心聲에 대한 의견과 一致한다. 이는 우연한 一致로 理論的인 하나의 合一이라 하겠다.

張維는 '詩天機也 鳴於聲 華於色 澤淸濁雅俗 出乎自然 聲與色 可爲也 天機之妙 不可爲也'[53]라 하여 天機에 의한 詩를 주장한 점이 靑泉과 유사하다.

洪世泰는 '無非天機中自然流出 則此所謂眞詩也.'[54]라 하여 역시 天機에 의한 詩를 주장했다.

洪大容도 역시 '依乎自然 發乎天機 歌之善也'[55]라 하여 自然과 天機에 의

---

49) 趙東一, 《文學思想史試論》, 1978. p.222.
50) 南孝溫, 《秋江冷話》, 詩話叢林.
51) 李瀷, 《星湖先生文集》, 卷五十, 〈梅墩集序〉.
52) 《芝峰集》, 卷二十一, 〈雜著, 金通津草亭詩序〉에서는 靑泉과 같은 立場을 나타냈지만 〈唐詩彙選序〉에서는 余平生無所嗜 所嗜唯詩 而于唐最偏嗜焉라 하여 唐詩를 좋아했는데 비해 靑泉은 古詩를 좋아하였다.
53) 《谿谷集》, 卷六, 〈石洲集序〉.
54) 《柳下集》, 卷十, 〈海東遺珠序〉.
55) 《湛軒書》, 卷三, 〈大東風謠序〉.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한 노래를 중요시 다루었다.

丁若鏞도 유명한 〈朝鮮詩〉나 民謠風의 〈寓話詩〉를 창작하는 등 近體詩를 벗어난 우리의 詩를 시도하였는데 이점 역시 靑泉과 그 脈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열거한 사람들로 이어지는 文學觀이나 文學思想은 儒敎中心의 文學과 近體詩文의 形式에 못마땅함을 지닌 생각들이었다. 또 이들이 당시 儒敎中心의 上層支配層의 文學에 대립하여 民衆的인 文學을 계승 발전시킨 점은 우리 문학사에서 큰 意義를 지닌다. 靑泉은 이와 같은 脈絡 속에서 佛敎的인 사상과 道敎的인 사상을 아울러 지니고, 유교적인 사상에 대결하기 위해 불교와 도교를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품에 투영시켜 무엇이라 명명할 수 없는 사상을 정립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과 현실에 참여하는 실학정신으로 문학을 했다고 하겠다.

6. 結　　語

1) 靑泉은 古文에 立脚한 文學觀을 지녔으며 古文을 文章의 제일로 삼았다. 이러한 원인은 그가 자란 荒僻한 환경과 野性的인 그의 氣質이 古文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봐서 靑泉은 他意에 의한 관념적인 文學보다는 自意에 의한 經驗的인 文學을 했다고 하겠다.

2) 靑泉은 儒家的인 文學을 否定했고 道敎的인 文學과 佛敎的인 文學을 認定했다. 靑泉의 이러한 생각은 한편으로 당시 上層支配的이던 儒敎思想에 對立的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文學觀이나 野性的인 性格이 규범적이고 관념적인 儒敎思想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3) 靑泉의 詩는 그 특성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외형적인 면에 따라 聯作詩, 長篇詩, 六言詩, 唱和詩로 나누는 것이 좋고, 作品 內容面에서 紀行詩, 詩酒에 관한 詩, 佛敎的인 詩, 道敎的인 詩로 나누는 것이 편리하다. 聯作詩에서는 여러 수의 詩가 같은 題目에 포함되어 있어서 全體와 部分의 관계에서 把握할 때 詩의 意味가 좀 더 명확해진다. 長篇詩는 無限한 作家의 詩的 心像이 유연하게 표현되어 있고, 六言詩에서는 六言詩의 性格과 특징을 찾을 수 있으며, 唱和詩에서는 即興的이고 꾸밈새 없는 표현을 찾을 수 있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다. 詩酒에 관한 詩에서는 삶과 現實에 대한 葛藤, 격렬해진 분위기와 감정, 작가의 氣質 등을 찾을 수 있고, 紀行詩에서는 作家의 對景物觀, 日本의 習俗 등이 주로 나타나 紀行文과 調和를 이루고 있으며, 佛敎的인 詩에서는 作家의 對佛敎觀, 老年期의 人生觀 등을 찾을 수 있고, 道敎的인 詩에서는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을 벗삼아 자연과 和合하여 同樂하는 기쁨을 나타낸 것이 많다. 특히 古詩나 樂府詩 등에서 作品의 우수성을 발견할 수 있고, 無形式에 의한 長篇詩에는 楚辭나 詩經의 詩風이 강하게 엿보인다.

4) 靑泉은 詩의 本質에 대해서는 '詩心聲也'라 하였고, 形式에 대해서는 '詩不以規矩 不以格律 不以聲容色澤'이라 하였으며, 內容에 대해서는 '實中有虛'와 '虛中有實'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詩論은 당시로 보아서 매우 體系的인 생각이었으며, 그의 作品과 一致한다고 하겠다.

5) 靑泉文學의 文學史的 위치는 그의 文學觀, 詩論, 作品의 우수성 등으로 보아 17~18C의 文學思想家들과 脈絡이 닿으며 같은 그룹을 形成한다고 하겠다.

6) 靑泉文學의 否定的인 면은, 近體詩를 否定한 理論을 展開했지만 近體詩를 끝까지 否定하지 못한 점, 近體詩도 그 나름대로의 長點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否定한 점, 交遊가 넓지 못하여 자신의 주장이 당시 유명한 文人들로부터 크게 인정받지 못한 점, 道學的인 文學을 전적으로는 認定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능가할만한 설득력 있는 理論을 展開하지 못한 점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時代的인 環境에 의해 자신만으로는 극복하지 못할 限界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7) 靑泉文學에 대한 硏究는 그가 중국으로부터 받은 影響과 日本에 끼친 影響까지 연구되어야 바람직하다. 이 점은 後日의 課題로 삼는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